제4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4년 8월 30일(금)

14:00~16:0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4회 KWO 나지포럼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회 KWO 나지포럼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시 : 2024년 8월 30일(금) 14:00~16:00
장소 :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록	14:00~14:10	• **등록 및 명찰 배부**
개회식	14:10~14:30	• **개회사**(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 **축사**(성일종 국방위원장) • 축사(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기념촬영**
주제발표	14:30~14:50	•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신석호(동아닷컴 전무이사,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종합토론	14:50~15:05	【토론】 박노벽(前 주러시아 대사) 【토론】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다과	15:05~16:00	• 다과
폐회	16:00	• 폐회선언

〈목 차〉

개회사 ▮ 백승주

【주제발표】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석호 ····· 9

관점1 : 강대국 러시아의 글로벌 대전략 ····· 12

관점2 : 코로나19 체제위기 탈출을 위한 외교적 몸부림? ····· 16

관점3 : 북한과 쿠바의 권력승계용 외교전략 ····· 21

【종합토론】

박노벽 ····· 29

안드레이 란코프 ····· 35

유영철 ····· 39

개 회 사

백 승 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2024년 제4회 KWO 나지포럼' 콜로키움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축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해주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준비해 주신,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이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국제정세의 불안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러가 계속 밀착하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온 북한은 더욱 고무되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고조될 것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우리 전쟁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현재의 안보 정세를 올바로 진단하여 전쟁 예방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해당 사안을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준비했습니다.

석학들의 진단과 제언들이 큰 울림이 되어 우리나라,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2024년 『KWO 나지포럼』은 본시 대규모 세미나를 분기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4회 『KWO 나지포럼』은 분기 사이 중간에 소그룹으로 콜로키움 형태의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 및 콜로키움을 통해 전쟁기념사업회에 부여된 호국의 전당 역할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앞장서서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평소 전쟁기념사업회에 성원을 해주신 국방위원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발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석학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쿠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 석 호

(동아닷컴 전무이사,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2022년 본격화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2024년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로 정점에 이른 러-북 밀월의 촉발 요인이 되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국제적인 저항과 고립에 직면한 러시아는 옛 소련의 아시아 동맹국이었던 북한의 정치적 지지와 재래식 무기 등의 지원이 필요했다. 역시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이 이끄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정치적 후원과 경제 및 기술 지원 등이 필요했다.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결한 이 조약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동맹조약'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양국간 협력을 담고 있다. 특히 1996년 폐기된 조소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 탈북자 강제송환이 가능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러-북 밀착과 조약 모두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이상을 전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북 밀월이라는 국제정치적 이벤트의 발생 요인을 보다 폭넓게 파악해 보려는 시도다. 위에서 요약한 '러-북 양국관계와 한반도 안보 중심적 관점'보다 넓은 범위의 세 가지 요인을 추가로 제기한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러-북 양자 관계가 아니라 강대국 러시아의 글로벌 대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요, 북한의 대러시아 밀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체제 위기 극복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관점이 둘째요, 김정은에서 김주애로 시도되고 있는 4대 세습체제 안착을 위한 대외전략으로 보는 관점이 세 번째다.

세 가지 관점은 엄밀하게 논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이 글은 '아카데믹' 하다기보다는 '저널리스틱' 하다. 25년째 한반도 안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언론인이자 북한학자의 입장에서 제4회 나지포럼이 구성한 지적공동체의 상상력과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임을 밝힌다. 다만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으로 20년째 북한과 쿠바를 비교 연구해 온 경험

을 토대로 세 가지 관점 모두에 쿠바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

관점1 : 강대국 러시아의 글로벌 대전략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푸틴과 김정은의 평양 정상회담 전날인 6월 18일 진행된 동아닷컴과의 6·25전쟁 발발 7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대국 관점'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간단치 않은 나라다. 과거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유럽 석권 야심을 깬 게 바로 러시아"라며 경계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독일 합참의장을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첫마디가 '러시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였다. 우리가 좀 잘 사니 러시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를 간단히 평가하면 안 된다. 러시아는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1]

7월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러북 동맹 복원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차 NK포럼에서는 강대국 러시아의 글로벌 대전략으로 러-북 밀월을 보는 두 연구자의 발표가 제기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창용 전 주러시아 공사는 "(러-북 밀월은) 구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의 부활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 핵심축으로 부상하려는 푸틴의 야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이러한 푸틴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과정들이었으며 김정은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핵과 재래식 무력 증강 및 현대화에 기반한 강대강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2]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러-북 밀착과 한-러 관계 악화는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른

1 "6·25앞둔 北-러의 수상한 밀월…대형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동아일보 온라인, 2024년 6월 20일).

2 윤창용, "러시아-북한간 동맹 복원의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년 제3차 NK포럼).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Grand Strategy)과 직결되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래식 무기의 공급 등 북한의 중요성이 커지자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미·반서방'으로 요약되는 대전략 하에서 5기 출범 이후 중국,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권역 국가들, 북한과 베트남 등 과거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약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3]

독일 시사주간지 디차이트(Die Zeit)가 6월 22일자 '서방세계를 겨냥한 푸틴의 아시아 동맹' 제하의 기사를 통해 푸틴이 중국과 베트남, 북한과 힘을 모아 아시아에서 서방세계에 대항하는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시각이다.[4]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도 6월 25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북) 조약은 한반도와 역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면서 북한과의 조약 체결이 미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시사했다.[5]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로 러-북 동맹도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양국 밀월을 추동한 가장 큰 동력은 강대국 러시아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점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북한은 이를 지지했으며, 김정은은 그해 12월 2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랭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러시아에 편승해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과 푸틴은 다음 해인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올해 평양에서 열린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조약에 서명한 것이다.

---

3 현승수, "러-북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 평가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년 제3차 NK포럼).
4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페이스북 글 (2024년 6월 23일).
5 뉴시스, 2024년 6월 25일.

최근 러시아-쿠바 관계도 유사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러-북 정상회담 직전인 올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러시아는 북방함대 소속 군함과 잠수함 네 척을 쿠바에 파견해 양국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군함과 잠수함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들로 600km 거리에 있는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진행했다는 보도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하게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6] 미 국무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러시아가 극동의 우방국인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발밑에 해당하는 중남미의 쿠바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쿠바의 전력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이다. 쿠바 전문매체 쿠비타나우 등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세르게이 시빌레프 러시아 에너지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쿠바 부총리에게 전력시스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7] 앞서 쿠바 정부는 자국민 일부가 러시아와 용병 계약을 맺고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인정하는 등 양국간 협력과 교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8]

러-북 밀월은 중-북 관계를 악화시킬 것인가?

다시 러-북 관계로 돌아가 그것의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차치(且置)하고 과거 소비에트 정치경제 블록을 회복해 미-소 냉전 구도를 이끌겠다는 것이 러시아와 푸틴의 진짜 의도라고 할 경우 그것은 현재 태평양 서쪽에서 미국에 맞서는 패권국가를 꿈꾸고 있는 중국의 대전략과 상치(相値)되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여지가 충분하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이 확인된 뒤인 6월 13일 북-러 협력 강화가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9] 러-북 관계의 강화가 북-중-러 3각 관계의 강화가 아니라 중-러 갈등의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6 "미국 '턱밑' 쿠바서 무력시위 러 핵잠수함, 5일만에 출항" (연합뉴스, 2024년 6월 18일).
7 "최악의 쿠바 전력난, 러시아가 구세주 될까" (아시아투데이, 2024년 6월 18일).
8 "러시아 용병 된 쿠바인…원인은 경제 침체" (KIEP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3년 9월 23일).
9 동아일보, 2024년 6월 13일.

것이 현실화 될 경우 최근 북한의 대러 밀월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훼손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도 자가당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김정은식 중소 등거리외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푸틴의 대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라는 '불량 간식'에 혹해 중국이라는 '영양 식사'에 문제를 초래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0]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러-북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북한도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러-북 정상회담 직후 동아일보는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간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 정부가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11] 중국 외교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의 이상기류가 감지됐다.[12] 중앙일보는 김정은이 중국에 근무 중인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마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내에서 화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중국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13]

물론 북한의 러시아 편향은 일시적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한국 망명 후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는 "중국은 물이 매일 졸졸 끊기지 않고 나오는 수도꼭지이고 러시아는 이따금씩 물이 나오지만 한번 나오면 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라며 "이따금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를 믿고 졸졸 나오는 수도꼭지를 자를 수도 없지만, 매일은 아니어도 한번 나올 때 며칠분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도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14]

---

10 이승열,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년 7월 11일).
11 동아일보, 2024년 7월 9일.
12 VOA, 2024년 7월 31일.
13 중앙일보, 2024년 7월 31일.
14 조선일보, 2024년 7월 18일.

관점2 : 코로나19 체제 위기 탈출을 위한 외교적 몸부림?

북한이 중국과의 거리를 띄우고 러시아와 간격을 좁히는 최근의 흐름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글로벌 위기 기간 시작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최근 러-북 밀월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다.[15]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초기 중국과 북한의 행보는 사뭇 달라 보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방관과 은폐,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았다. 반면 북한은 2020년 1월 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입국을 막는 과감한 방역 조치에 나섰다. 한국 등 보통 나라들이 확진 및 의심 환자를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하는 데 비해 북한은 나라 전체를 격리한 셈이다.

이른바 '동원형 정치체제'로 분류되는 두 나라의 다른 대응은 사실 한 가지 핵심적인 공통점에서 나온다.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가 권력층에 전달될 언로의 부재 또는 빈곤이다. 초기에 사태를 직감한 의사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낙인하고 언로를 막은 것은 최고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원인 중의 하나다. 북한이 '국가 격리'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변방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중앙이 감지하기 어려운 취약한 정치적 소통 메커니즘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은 거듭 부인했지만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관측이 초기부터 이어졌다.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적 물동량이 끊어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발 바이러스가 중국이 그토록 우려했던 '대북 제재 효과성'을 키우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실질 GDP 기준으로 2020년 -4.5%, 2021년 -0.1%, 2022년 -0.2% 등 3년 연속 역성장을 했다.

15 이하 코로나19 직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칼럼 '김정은, 이래도 중국에 올인할 건가'의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2020년 2월 21일).

코로나19 창궐 1년 전인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자는 '씨도 안 먹힐' 제안을 할 때, 김정은의 속셈은 '중국이 뒤를 봐줄 것'이었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2017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었다. 중국과의 공식 무역과 밀무역, 중국인 관광 등 세 가지 축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그럭저럭 핵을 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핵을 포기하고 정상 국가로서 여러 나라들과 두루 교류하는 정답을 외면한 결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형국이었다.

모두 김정은의 자업자득이었다. 사태의 원인이 된 중국의 숨겨진 후진성과 공산당 정부의 대응 태세를 보았다면 김정은도 '아차' 싶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생각에 이르지 않을까? '아, 미국과의 대화가 잘 안된다고, 남한에 실망했다고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믿을 건 동맹밖에 없다지만 지금 북조선은 중국에 너무 민감하고 또 취약하구나.' 자신의 깨달음이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이론의 핵심이라는 것까지 알았다면 그야말로 스위스 유학파라 할 만하다.

대대로 북한 김씨 일가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줄 서는 것은 피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은 든든한 후원국 소련의 '퍼주기' 원조에 방탕하고 게을러졌고 1990년대 초 소련의 체제 전환과 함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중국에 경사되었던 김정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교훈을 코로나19에 봉착하고야 깨달은 것은 아니었을까.

'밀접 접촉형' 현지지도 정치의 위기

코로나19가 드러낸 북한의 허약성은 대중 편중 외교뿐만 아니라 '현지지도'로 상징되는 통치방식에서도 드러났다.[16]

16 이하 코로나19 직후 김정은의 현지지도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칼럼 '코로나19가 바꾼 김정은 스타일'의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2020년 5월 15일).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활발한 현지지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무뚝뚝했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청년과 여성 등 주민들을 끌어안고 웃으며 '애민정신'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임을 홍보했다. 그렇게라도 대중의 지지를 얻어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 얼마 후엔 군부대를 찾아 나이 든 군 간부들을 옆에 불러 세우고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주민에겐 자상하게, 권력자들에겐 엄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김정은 스타일'이었다.

웃든 화내든 그의 현지지도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밀접 접촉형'이라는 것이다.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자면 '김정은이 보통 사람 냄새 좀 맡았겠구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방송을 통해 보는 다른 주민들이 마치 최고지도자와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이미지 정치였다. 방송을 보는 군 간부들이 자신도 혼쭐이 나는 느낌을 주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김여정과 같은 선전선동 전문가들은 '가까이 더 가까이'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화해 가면서 '밀접 접촉형 현지지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완전히 사라졌다. 미국 CNN 보도로 확산된 신변 이상설을 잠재우려 급히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2020년 5월 1일 비료공장 방문이 대표적이다. 최고지도자는 일단의 최고위 간부들의 수행을 받으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공장 근로자들과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 마스크를 쓴 근로자들은 단상 아래 줄지어서 박수를 치는 구경꾼일 뿐이었다.

김정은은 2020년 이후 코로나 기간 중 상당 기간 평양을 비웠다.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가 나오는 따위가 당시의 동정이었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이 코로나를 피해 원산의 집무실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접촉의 정도와 지역을 막론하고 현지지도 자체가 크게 줄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 상반기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수령 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는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지고의 가치인데 최고지도자의 권위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아예 현지지도 자체를

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지도는 김씨 3대 세습 독재가 대를 이어 구축해 온 독특한 통치행위다. 김일성 주석은 1956년 12월 11~13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을 한 후 그달 28일 강선제강소(현 천리마제강기업소)를 방문했다. 최고지도자가 현장에서 지시한 내용은 당군정의 간부들에게 공유되고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진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의 자원이 우선 배분되고 그 성과는 지도자의 국정 수행 능력으로 다시 홍보된다.

현지지도가 줄어든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60여 년 동안 수령이 현장에 떠야 일이 돌아가도록 길들여진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고지도자의 리더십과 국정 능력의 약화는 불가피해 보였다.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나왔다가 진화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비대면)' 리스크에 김정은이 노출된 것은 확실해 보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후원국 자가당착'

쿠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심해 경제위기를 넘어 사회불안이 고조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2020년 쿠바의 경우 북한 역성장 크기의 두 배를 넘는 -10.9%의 성장을 기록했다. 소련의 체제 전환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두 번째 해인 1991년 -10.7% 역성장을 한 것과 거의 같은 수치다. 북한 '고난의 행군'과 유사한 쿠바의 '특별한 시기'는 1990년 -2.9% 역성장으로 시작해 1992년 -11.6%, 1993년 -14.9%까지 4년 동안 이어졌고 이전 경제규모의 35%가 날아갔다.

피델 카스트로가 그토록 주저하던 시장 도입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1994년 한 해 동안 3만7139명의 쿠바인이 미국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조국을 떠났다.[17] 코로나19 경제위기 당시에도 쿠바를 떠나 미국 등으로 향하는 난민이 증가했는데 이는 특별한 시기를 훨씬 넘는

17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년), 93쪽.

규모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미국에 도착한 쿠바인은 22만5000여 명에 달했다.[18] 수도 아바나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경제위기가 사회 위기로 확산된 것이다.[19]

2020년과 1991년 쿠바 경제 역성장의 원인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 1991년 당시 쿠바는 물자와 달러를 넉넉히 퍼주던 후원국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끊자 '종속적 발전'의 물적 토대를 상실했다. 쿠바는 이로 인한 달러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 개방과 의사 등 인력수출, 탈 쿠바 난민의 송금 유입 확대 등 대외 부문의 개방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의 성공이 바로 30년 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달러 수입원인 외국인 관광과 탈 쿠바인들의 송금, 의사와 간호사 체육인 등 해외 인력 수출이 모두 중단되던 것이다. 글로벌 이동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오지 않았고, 달러를 송금해주던 플로리다 쿠바 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의사도 간호사도 야구 선수도 남미 등 친구 국가들로 나갈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지원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북한뿐만 아니라 쿠바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첫해인 2022년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석유를 쿠바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내에서 러시아인의 신용과 직불거래를 허용했고 이로 인해 쿠바를 여행하는 러시아인이 늘어나 2024년 1분기에만 전년의 2배 수준인 6만6000여 명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설탕, 럼주 등에 대한 러시아의 민간 투자도 발표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20]

쿠바는 소련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자신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던지는 '배신'을 한 뒤 그를 대체할 '후원국'을 찾아 전전했다. 중국이 관심을 보이다 후퇴했고 뒤를 이은 베네수엘라는 내부 위기로 쿠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줄이고 있다. 쿠바가 돌고 돌아 다시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 쿠바인들 스스로 "특별한 시기의 위기는 피델이 너무 소련에

18 "사상 최대 쿠바 대탈출" (주간동아, 2022년 12월 25일).
19 손혜현, "쿠바의 경제·사회 위기와 한·쿠바 협력 방안" (CE Special Report, 2024년 5월호).
20 "쿠바로 간 러시아 핵 잠수함..냉전 2.0, 다시 90년 이전으로" (머니투데이, 2024년 6월 12일).

의존했다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것은 낡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다름 아니다.

주변부 사회주의 공산당 독재국가의 '후원국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인민을 시장에 내동댕이치면서 수십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 역시 소련이 자본주의 러시아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사회주의 블록 유지를 위한 원조와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소련의 후신 러시아와 후대 김정은이 다시 손을 잡은 것이 최근 북-러 밀월의 역사적인 아이러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붕괴와 옛 소련 체제 몰락이 북한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위기를 몰고 왔다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혈맹으로 간주한다고 했다.[21]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쿠바만큼 대외 개방에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부문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쿠바와 비교할 때 장기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적 모순에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으로 인한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누적된 모순이 내부적으로는 극단의 핵 개발, 외부적으로는 '반미 블록' 강화로 냉전시대 회귀를 노리는 러시아의 수구적 부활에 편승하는 퇴행적 외교정책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점3 : 북한과 쿠바의 권력승계용 외교전략

2024년 현재 북한과 쿠바에서는 공산당 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 권력의 승계 작업이

21 조선일보, 2024년 7월 18일.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러-북 밀월을 보는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외교정책과 내부 권력승계와의 연관성이다.

국가정보원은 7월 29일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다.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온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정보판단을 밝힌 것이다.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손을 잡고 관영 매체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북 밀월이 무르익던 2022년 11월 18일이었다. 김정은은 한 달 뒤인 1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신냉전과 다극화 흐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러시아에 대한 편승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2008년 김정일의 후계구도 예측에 활용하면서 국내에 소개한 비교사회주의 정치학자 레슬리 홈스 박사의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후계자 결정 이론'을 활용하여 김정은의 후계에 대한 학문적인 추측(academic guessing)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른바 '3Ps+X' 이론이다.[22]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후계자 탄생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 나온 이 이론은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상실할 경우(X), 권력기반(Power base)과 인격적 자질(Personal qualification), 정책능력(Policy making ability)을 가진 인물이 후계자로서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김주애에게는 확실한 권력기반이 있다. 바로 아버지 김정은이다. 이미 아버지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 따르는 측근 그룹도 형성됐을 것이다.

---

22 동아일보, 2008년 5월 26일.

문제는 인격적인 자질이다. 최고지도자의 인격적 자질은 엘리트와 대중의 인정이 필수적인, 즉 상대방이 있는 영역이다. 유교적 유산에 더해 김일성 김정일 독재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된 가부장적인 북한의 정치문화가 '여성 수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미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던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면 잠정적인 대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격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마지막 자격인 정책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방편이다. 김주애가 북한의 어떤 정책결정에 간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아버지 김정은이 김주애를 현지지도에 동행하여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매체를 통해 대중에 노출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은 "적어도 60% 이상의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주애가 처음 매체에 등장한 장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이었다.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의 죽음과 함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고 본다면 집권 14년차인 올해를 기준으로 아버지 김정은 역시 권력의 공고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의 사람과 조직, 제도와 철학을 통치 전반에 심는 과정을 말한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을 경우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에 비하면 집권 12년차(2022년 기준)에 후계자를 공개한 것은 매우 빠른 이례적인 것이다.

본인의 권력 공고화와 함께 후계 구축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정책능력의 과시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과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외교적 밀착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먼 훗날 진짜 김주애가 공식 후계자가 되었을 때, 2022년 러시아와의 외교 강화가 김주애의 아이디어와 지도력에서 나왔다고 북한 매체들이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쿠바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의 시대를 끝내는 진정한 의미의 권력이양이 이뤄졌다. 현재 쿠바의 당정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구엘 디아스카넬 현 당총서기 겸 대통령은 2018년 4월 당시 라울 카스트로 당 제1서기 겸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혁명군 최고사령관에게서 정권인 국가평의회 의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2020년 혹독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난제를 맡았고 2021년 4월 8차 당 대회에서 라울이 정계를 은퇴하자 당 제1서기와 쿠바혁명군 최고사령관 자리까지 승계했다.

현재도 독재권력의 공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디아스카넬은 이 과정에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넘어 체제 위기로 번지고 있는 현상을 관리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2022년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관계 강화 약속을 얻어냈다. 올해 5월에도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 참가차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르는 말인) 모든 특별군사작전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3]

알려지지 않은 북한 변화의 씨앗 찾아내야

이상에서 제기한 러-북 밀월의 요인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미래에 검증 가능한 부분이 있다. 러시아의 북한 껴안기가 전략적인지 전술적인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고 러시아와의 협상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북한과 쿠바 공들이기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대전략 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립을 잃은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제기되고 있다.[24]

필자는 언론인이자 사회과학자로서 2020년 시작되어 3년 남짓 계속된 코로나19 기간을 여러 분야에서 '블랙박스'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팎으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기간 동안 저변에서 진행된 변화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정치경제, 사회적 이변처럼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하물며 '국가 봉쇄'를 단행한 북한의 경우 더더욱 알려지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때 뿌려진 변화의 씨앗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쿠바에서는 한국과 수교를 한 올해 봄에

23 머니투데이, 2024년 6월 12일.
24 이승열, 앞의 보고서.

도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경제위기가 사회 위기로, 이것이 마지막 층위(層位)인 정치 위기로 번져갈지 관찰해야 한다.

쿠바와 달리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 4대 세습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김주애 후계자 지정설이 맞을 경우 북한에서의 첫 여성 최고지도자 옹립을 놓고 벌어지는 은밀한 권력 투쟁 등 평양 내부 정치의 움직임에 정보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나 중국 등 주요 후원국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끝〉

종합토론

【토론자】

박노벽(前 주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학교 교수)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토론문】

러-북한 관계와 러-쿠바 관계의 분석과 시사점

박 노 벽(前 주러시아 대사)

Ⅰ. 발표문의 세 가지 관점

- 러북 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분석과 이해, 최근 러쿠바 관계의 이해 심화를 통해 주요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시도

Ⅱ. 러북 관계 도전과 대응

1. 러시아의 글로벌 대전략에 따른 국제체제 변화관점

가. 러시아의 세계전략: 지역적 세력권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중국 등 연대로 반서방 다극체제 구축 지향

-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권 지역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과 지위를 주장
- 러시아가 NATO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구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오던 중, 전쟁을 계기로 러-NATO 간 적대적 대결 관계로 악화
- 트럼프 하 미국의 국제문제개입 의지 약화와 국내문제 중시 경향을 보임에 따라, 푸틴은 시진핑과 연대하에 지역 강대국 중심으로 세계 권력의 재편 추세의 가속화 추진

나. 전쟁 장기화계기, 러북 정상회담 개최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등 관계가 대폭 격상됨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 및 동맹권간 갈등이 동북아로까지 확산

- 유엔 결의 채택 등 국제적 대러 비난, 서방의 제재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의

제재 동참, 한미일동맹 체제 강화와 나토와의 연계에 대해 러의 전략적 대응 세력 구축 도모

- 북한은 2022.3월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며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두둔, 냉전구도 형성 지지로 전략적 대응 관계의 구축 계기 촉발

다. 러북 밀착은 북중 관계에 대한 영향과 러중 관계의 긴장 조성

- 중국의 경쟁적 입장: 미국의 패권 저지의 목표공유와 별도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유지, 북중러 간 군사적 연대에 대해 경제적 영향을 고려, 유보적 입장 견지
- 러시아의 대중 종속화 우려

2. 코로나 위기 후 러중에 대한 북한의 줄타기 외교와 러의 구소련식 후원국 복원 관점

가. 북한: 외교적 고립 탈피와 대중 경제협력 대비, 대러 군사협력에 주력

1) 2022년 8월 코로나 방역 전 승리선언 이전, 2021년 이래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직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에 중요도 부여
   -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와 2022년 6월 노동당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간주, 소형 전술핵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고체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등 핵무력 강화를 국가목표로 설정
2) 2022년 2.8 러북 고위 외교당국자 협의
   - 2022.2.13. 북한은 러침공설 유포라 주장하며 미국규탄
   - 2020년 팬데믹으로 중단된 국경을 통한 나진 하산 간 화물용 철도운송을 2022년 11월 재개키로 협의, 러북교역 재개, 여객 운송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항공편)와 하산(철도편)을 통한 정기 여객 서비스 재개 협의

나. 러시아

1) 우크라이나전쟁 계기, 서방의 동맹에 대한 대결 구도와 글로벌 사우스 관계 확대 시도
   - 북한, 쿠바, 아프리카 등 소련 시대의 반미성향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및 강화를 통해 서방 주도 동맹체제에 대항하는 유대 형성과 확장 도모

2) 북한산 포탄, 로켓 등 무기의 조속한 도입 필요: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와 대러제재로 탄약, 포탄 등 무기 부족을 메꾸기 위한 북한의 지원 활용
   - 2022년 4월부터 무기 거래설 제기, 9월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탄약 및 로켓을 구입코자 중국을 접촉, 거부되자 북한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설명
   - 2023.1.20 미백악관은 러 와그너그룹(민간용병회사)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
3)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 지지에 대한 평가로 두 차례 정상회담(23년 9월, 24년 6월)을 통해 관계 전환 계기 마련
   - 2023.1.3. 러외교차관, 북한과의 포괄적 관계 발전 추진 발언
   - 러북 경제, 군사 협력에 지장 받지 않도록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전문가패널 무력화

3. 지도자의 개인 차원 관점

가. 푸틴, 우크라이나침공을 계기, 남북 등거리 정책에서 북한과 냉전 시 관계 복원

1)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러북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체결로 격상시키면서 군사 외교 경제 등 양자 관계 확대와 동북아 안보질서상 대립 구도 형성 포석
   - 푸틴 대통령, 2024년 3월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87%)로 5차 연임, 국내 기반 강화
2) 한국에 대해 유화적 메시지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
   -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의 살상무기 공급 자제 및 관계 유지 여지

나. 김정은, 대미교섭 실패 이후 핵무력 현대화 정책 전환으로 정권 안전 도모

1) 2019년 트럼프와의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핵무력 현대화와 대미, 대남 전략의 적대화로 전환하면서, 강대국간 대립구도 형성 기미를 활용
   - 러시아산 식량, 에너지 지원확보, 무기 및 노동자 지원에 따른 외화 확보로 국내 정권기반 강화
2) 정권후계 구도 관련 크렘린 성격상 국내문제 불간섭 입장에 따라 지지 확보 용이

4. 대응 방안

가.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변화 시 우크라이나전쟁, 미러 관계, 미중 관계 등 변화 가능성 대비
- 전쟁 종전 및 제재 해제 여부 등
- 미러 고위 정부당국자 간 안보 상황 관리 중

나.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와 러 민감군사기술의 대북 이전 여부 관련 국제적 협력

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과 이후 러북간 군사 거래, 경제 협력의 추이 주시

라.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우크라이나 전쟁억제의 확장억지와 우리의 외교·군사안보력 강화

마. 러시아, 북한의 장기적 변화
- 러시아의 일반 국민 견해, 2022년 이래 이탈 해외 러국민 동향

Ⅲ. 러-쿠바관계 변화와 한계

1. 러 의도와 한계

가. 국제적 반미연대 블록 구축
- 2024.6월 러 핵추진잠수함 등 함대가 쿠바 등 카리브해 훈련을 위해 쿠바 정박, 미러 긴장 관계 고조를 계기로 안보 위협 신호 발신

나. 쿠바 주변에서 러시아의 상시 대미 견제 수행 능력 제한

2. 쿠바의 대러 관계복원과 한계

가. 쿠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러시아의 경제지원 계기로 전략적 유대 회복 도모
- 쿠바 경제상황 악화의 주 원인은 2015년 미-쿠바 간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 트럼프집권 이래 쿠바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등 경제 제재 지속과 쿠바의 사회주의체제 지속
- 2021년 이래 식료품 부족, 에너지 부족, 고물가 등 경제난 지속되어 국민총생산이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 2022년 이래 인구 4%가 해외 이주로 고난의 기간 재현

나. 냉전 시대의 러와 연대를 활용하여 경제난 극복하기에는 경제 협력 규모는 제한적
- 러-쿠바 간 교역액, 2022년도 4억5천만불

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쿠바의 외교 경제 관계 다변화
- 쿠바, 중국·브라질 의존탈피와 정치 안정 도모를 추구하며, 2024.2.14.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경제 협력 기대, 북한과의 단독 수교 관계 의존 탈피

3. 쿠바의 정치지도부 변화

가. Raul Castro (89세: 2016~2021년)는 Miguel Diaz-Canel(60세) 대통령(2018년 이래 5년 임기)에게 2021년 공산당 제1서기 및 군사령관 직을 인계 후 은퇴
- 디아스 카넬은 2022년 방러, 푸틴과 정상회담으로 양국 지도부 간 협력 도모

나. 쿠바 의회는 2023년 디아스 카넬(Diaz-Canel) 대통령의 5년 재임을 승인. 〈끝〉

【토론문】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에 대한 토론문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학교 교수)

신석호 전무님의 발표에서 중요한 장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언론이나 전문지에서 제기된 러-북 밀착 관련 의견 및 가설을 잘 종합하고 분석하신 것입니다. 물론 쿠바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 북한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무관심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점 1. 러시아의 대전략

관점 1을 다룰 때 신 전무님께서는 한국 언론에 나온 보도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외국 언론을 거의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언론의 분석력이나 판단력을 과장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러-북 관계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서방 언론들의 보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 기초하여 논문을 작성한다면, 상기 약점을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토론자는 소련 시대의 경험, 기억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1970년대 소련과 사뭇 다른 나라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러시아의 군사력, 경제력 즉 국력은 소련 시대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꿀지 모르지만, 러시아 지도부는 이 목적을 달성할 희망조차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의 진짜 목적은, 옛 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패권 부활뿐입니다. 특히 독일 디 차이트는 푸틴이 중국과 베트남, 북한과 힘을 모아 아시아에서 서방세계에 대항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지나친 주장입니다. 베트남은 서방에 대항할 생각조차 없고, 베트남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을 가로막는 쓸모 있는 자산입니다. 푸틴이 하노이를 떠나자마자 베트남 측이 미국 국무부 차관을 초대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요란하게 보여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중-러 관계도 비대칭성이 매우 강합니다. 중국보다 매우 약한 러시아는, 중국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 때문에 러-북 밀월이 중-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도 등거리 외교를 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의 1/10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총생산도 중국 총생산에 비하면 1/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중국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2) 관점 2. 코로나-19

신석호 전무님께서는 어느 정도 북한 위기론의 영향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특히 1990년대 초 쿠바와의 비교, 소련과의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오늘날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경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많이 강화했고,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원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때문에도, 유엔 제재 때문에도 북한이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비하면 이 위기는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위기보다 침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점 3. 북한과 쿠바의 권력승계 문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북한과 쿠바의 권력승계 문제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트로 가족은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시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델과 라울 둘 다 1950-60년대 혁명 운동 참가자, 새로운 국가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갈수록 절대군주제 국가의 특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발표에서 인용된 국정원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의 딸은 차기 북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계승자가 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장기적인 체제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해 김씨 일가에 속한 다른 후보를 추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바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에 권력이 승계된 것은, 가족 내부의 권력승계가 아니며, 1970-80년대 공산권 국가 대부분의 모델과 아주 비슷합니다.

【토론문】

유 영 철(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북러 신조약 평가

○ 2024년 6월 푸틴의 방북과 함께 채결된 북러 신조약은 1961년, 2000년 북러 간 조약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
- 1961년의 6조, 2000년 12조보다는 23조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

○ 신조약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4조의 조항이 과거 구소련 시절 체결되었던 1961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점
- 특히 자동 군사개입에 대한 해석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견해차가 남
- 북한은 북러 간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
- 러시아는 구소련과는 달리 수호해야 할 이념이나 보호해야 할 동맹이 없다는 점에 유의

○ 북러 신조약 체결이 러시아의 국가 대전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생된 결과라고 판단
-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러시아의 국가 대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분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

■ 북러 관계 발전의 동인

○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특수성
- 그간 러시아는 정치적 의도로 인해 북한을 지지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미
-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

- 북한으로서도 국제 제재로 인해 파탄 지경의 경제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도움 절실
- 전쟁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양측 이해관계 합치

○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 예상

-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 무상 군사원조를 사실상 중단하였으며,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
- 고위급 군사 교류는 현재보다 활발해질 수 있으나,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깰 수 있는 협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북러 관계 발전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북중러 3각 관계 평가

- 북중러 3각 협력은 다분히 저널리즘에서 근원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
  * 북중러 3국은 양자관계는 발전하여 왔으나, 3국의 협력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군사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러 관계의 발전이 중국을 자극하여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다분히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 우리의 대응 방향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국제관계 변화

-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종식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현상이 있으나, 쿠르스크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며, 이를 방어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점을 간과

○ 북러 신조약을 폐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러시아와 대화 채널을 찾아 다각도로 접촉
-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경제, 문화 교류 등을 먼저 실행

- 향후 자원 부국으로서의 러시아 활용 방안 모색
- 북러 군사협력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러시아에 자제 요청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